200자 안내

조니의 푸른 일기

존 칸서 지음 / 김형섭 편역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인 저자가 뇌종양으로 사망한 아들의 투병생활을 감동적으로 그린 책. 하버드대학 진학을 눈앞에 두고 병마와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던 조니는, 투병중에도 아인슈타인박사와 서신교환을 할 정도로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었다. 병마에 쓰러졌지만 정신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했던 아들의 투병을 눈물과 사랑으로 바라보았던 아버지의 기록.

국제문화출판공사/A5신/298면/3000원

죽은 새는 노래하지 않는다

정건섭 지음

추리작가 정건섭의 열세번째 소설집. 오랜 투병생활 끝에 살해당하는 중년여인, 그리고 그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남편. 서울과 대관령을 오가면서 펼쳐지는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인간내면세계의 갈등과 욕망을 흥미롭게 그린 작품이다.

삼중당/A5신/270면/3000원

성서의 수수께끼

백민관 지음

성서를 읽어가면서 일반평신도들이 의문을 갖게 되는 애매하고 비합리적인 구절과 사건들을 수필형식으로 담담하게 풀어가고 있다. 시험관 아이, 현대무신론과의 대화, 불임수술과 가톨릭윤리, 기독교윤리 속의 효 등 현대인이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폈다.

청노루/A5신/196면/2800원

하나

리차드 바크 지음 / 이일수 옮김

「갈매기의 꿈」으로 독자들과 친숙한 저자의 최신작. 아내 레슬리와 함께 떠난 환상적인 여행을 통해 무한한 사랑만이 세계를 하나로 묶는 힘의 원천임을 깨달아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과학과 인간정신이 흥미롭게 조화를 이룬 소설이다.

집현전/신국판/256면/3000원

10월인민항쟁연구

정해구 지음

해방직후인 1946년 10월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명 '대구폭동'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을 고찰한 연구서. 대구의 10월 인민항쟁은 결코 폭동이나 소요의 차원이 아니며, 일제하에서 이어져 내려온 민중들의 변혁을 향한 지향과 행동에서 비롯되었음을 규명하고 있다.

열음사/A5신/242면/3800원

질그릇에 담긴 보물

J.리딕 지음 / 박래창 옮김

가톨릭 수도자들의 서원에 관한 영성과 신학의 원칙들을 심리학적 요소들에 적용시켜 수도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이 보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조언한 책. 생리학적 차원 · 사회학적 차원 · 영적 이성적 차원 등 3가지 차원의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복음적 권고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정립하고자 했다.

바오로서원/A5변형/268면/3000원

비오는 날의 군것질

양인자 지음

「킬리만자로의 표범」「서울 서울 서울」등의 노랫말 작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소설가 양인자씨의 꽁트집. 「사랑의 묘약」「무슨 날일까?」「어떤 격려」「새댁」「창밖의 여자」등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이야기들을 섬세하면서도 재치있게 그린 35편의 꽁트를 수록했다.

선비/A5신/238면/3000원

朴木月詩硏究

金炯弼 지음

박목월 시의 전개과정을 초록의 시학, 향수의 시학, 생활의 시학, 신앙의 시학으로 분류하여 그 안에 나타나는 시의 요소들을 내재적 접근방법으로 상관성있게 고찰한 책. 또한 그의 시세계를 동심지향과 모성지향으로 규정짓고, 목월시의 특징과 본질을 규명함으로써 그 시사적 위치를 재조명하고자 했다.

二友出版社/A5신/188면/3800원

만남의 순간을 영원한 사랑으로

유문동 엮음

납월북문인들의 대표 수필들을 중심으로, 일제시대 저항시인들과 개화기 여류문인들의 수필을 함께 수록했다. 이태준의 「책」「낙서」「통속성 기타」, 백석의 「편지」「마포」「입춘」, 김기림의 「다도해 난상」「도시풍경」「故 이상의 추억」 등을 수록하고 출전도 함께 밝혔다.

배재서관/A5신/330면/3500원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

발렌틴 요르니크 지음 / 정규화 옮김

동명 소련영화의 원작시나리오를 소설로 재구성한 작품. 소련사회의 일상적인 가정생활, 계급없는 사회에서의 계급차별, 상류생활에 대한 동경을 세 여성의 우정, 사랑, 배신, 고난을 중심으로 깔끔하게 그린 화제작이다.

시대문화사/A5신/280면/3500원

명상의 나무아래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지음 / 홍동선 지음

'이 시대의 마지막 현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인도의 명상철학자 크리슈나무르티가 발표한 여러 저서들 중에서 명상에 관한 주요 부분만을 발췌하여 엮었다. 현대인들에게 자기극복과 참된 자유를 향한 방법으로 명상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책.

책세상/A5신/86면/2000원

지혜의 삶 믿음의 삶

宋錫球 지음

儒佛사상에 정통한 저자(동국대 철학과교수)의 수필집.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지혜에 관한 저자의 견해, 지혜와 믿음의 길에서 서성거렸던 저자의 개인적인 발자취,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 주변의 여러 문제점들에 관한 의견들을 차분하게 이야기한 글들을 수록했다.

우리출판사/A5신/322면/3500원

파시즘

마아틴 키친 지음 / 강명세 옮김

파시즘은 인류의 참된 자유의 발전을 막고, 낡고 비합리적인 생산양식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저자는 파시즘의 발생역사를 살핌으로써, 파시즘이란 사회적 산물이며 결코 국민성의 특수성, 역사의 변덕이나 우연, 사악한 음모집단, 무책임한 지도자로 인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다.

이론과 실천/A5신/146면/2000원

老年期의 臨床心理學

井上勝也 편저 / 宋大炫 옮김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문제도 다양한 양태로 제기되고 있다. 노인심리학이란 다소 이색적인 분야를 탐색하고 있는 이 책은 노망 · 우울증상 · 범죄와 성 · 죽음에 관한 구체적인 임상 및 노인에 대한 심리검사의 적용과 카운셀링을 폭넓게 살피고 있어 흥미롭다.

星苑社/A5신/328면/4500원

괴테와 獨逸古典主義

朴贊機 엮음

「괴테연구」「파우스트연구」에 이어 한국괴테협회에서 펴낸 세번째 논문집. 괴테와 그 시대의 문학조류에 관한 국내학자들의 논문 9편과 독일에서 발표된 논문6편을 번역해서 실었다. 「괴테비판과 고전주의배격의 의미고찰」(박찬기) 「괴테와 호프만」(최민숙) 「괴테와 쉴러와의 교류 및 독일고전담시의 정립기」(고창범) 등 수록.

高麗大學校出版部/A5신/442면/7500원

南美解放神學

梁堅 지음

남미의 해방신학을 중심으로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파악한 연구서. 구스타보 구티에레즈 등 남미 해방신학자들의 사상을 근거로 1960~80 년대에 이르는 역사적 상황에 초점을 두어 분석했다. 한국의 '6월 민주화 항쟁' 이후의 상황을 비춰보면서 해방신학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博英社/A5/150면/4500원

이광요

T.S.George 지음 / 閔堯基 옮김

1959년 정권을 잡은 이래, 30여년동안 절대권력을 휘둘러 온 싱가포르수상 이광요. 그가 동남아 최장기 집권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채찍과 설탕을 적절하고 능란하게 이용함으로써 국민체질의 순응화에 성공한 그의 독특한 정치스타일을 분석한 책이다.

南島文化社/A5신/312면/3500원

交通經濟學

Stubbs, Tyson, Dalvi 지음 / 朴明燮, 姜世勳 옮김

교통사정의 악순환은 여러가지 사회 ·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통부문의 적절한 계획수립과 효용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영국과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통전문가인 저자들은 이 책에서 교통업계 개편, 도로혼잡 및 대중교통의 소통 등 교통과 관련된 사회 · 경제적 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어 관련종사자들에게 유용

한 지식을 제공한다. 「한국학술진흥재단번역총서」57.

大光文化社/A5신/262면/6500원

니이체철학의 현대적 조명

鄭東湖 엮음

국내의 니이체철학 연구성과들을 한곳에 모은 논문집. 「니이체의 인식이론」(정동호) 「니이체의 진리관에 대하여」(한전숙) 「니이체에 있어서의 허무주의」(최준성) 「니이체의 디오니소스적 비극적 세계관」(박준택) 「힘에의 의지인 구조적 고찰」(이영호) 등 8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증보판.

청람/A5신/262면/3800원

일본의 국가전략

岡崎久彦 지음 / 具鬨瑞 옮김

2차대전 이후 일본 자위대에서 방위문제와 국제문제에 깊이 관여해 온 저자의 「전략적 사고란 무엇인가」를 번역했다. 일본의 역사와 지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철저한 파악을 바탕으로,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헌법·비핵3원칙·안보조약 등을 폭넓게 살피고 있어 일본의 국가 및 방위전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바람과 물결/A5신/200면/3000원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강계순 편역

중세철학의 거봉 피에르 아벨라르와 재원 엘로이즈의 서간집. 중세 최대의 연애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의 편지들을 통해,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는 사랑의 경건함을 재인식할 수 있다.

第三企劃/A5신/348면/3500원

韓國飮食五千年

한국음식문화오천년전준비위원회 엮음

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의 하나로 개최됐던 「한국음식오천년전」과 함께 출간된 책.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 풍부한 해산물과 농업위주의 생산활동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농수산물을 주축으로 불교와 유교 등 종교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창출해 낸 한반도 특유의 먹거리문화를 흥미롭게 살폈다.

유림문화사/A5/142면/3000원

어머니, 그 그리운 이름이여

최인호 지음

인기작가 최인호씨가 87년 가톨릭에 귀의한 후 「생활성서」에 연재해오고 있는 「어머니」를 모아 단행본으로 펴냈다. "어머니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 태어난다"고 강조하며, 구원의 어머니상에 대하여 애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동화문학사/A5/184면/2800원

어느 신사의 환타지

구자형 지음

「보슬비 오는 거리」「비둘기 집」「밀짚모자」「저 꽃 속에 찬란한 빛」 등 수많은 히트 가요의 작사자로 활동했으나, 78년 2월5일 행려환자로 취급받아 동부시립병원 복도에서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42세의 나이에 아깝게 사망했던 田友씨의 일대기.

태응출판/A5신/260면/3000원

민간요법

李 壎 엮음

오랜 세월을 거쳐 민간에서 써내려오는 건강의 지혜들을 모은 책. 항암제 효과를 갖고 있는 매실과 살구씨, 젊음의 특효약 참깨, 니코틴 해독제 다시마, 부작용 없는 혈압강하제 샐러리, 심장병을 고쳐주는 칡 등 동서양의 민간요법들을 소개했다.

자유시대사/A5신/342면/4000원

창간호

아름다운 우리옷

88년 12월 창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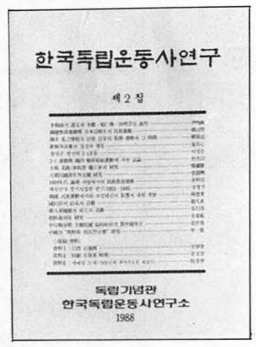
[특집] 중국여행기, 중국에서도 우리옷
[패션특집] 리드미컬한 색상의 하머니
[초점] 한복이라고 꼭 맞추어야 되나요
[지상좌담] 올림픽 이후 우리옷 어떻게 달라졌나?
[황신엽의 두루마기 시리즈①] 화려한 두루마기의 대화
[옷본] 누비 반두루마기
[민족의 숨결] 紙
[바느질 교실] 바느질이 특별한 기술인지 모르겠네요
[칼럼] 독창성을 기르자(안도섭)
[POEM] 한복 입을 때
[신간안내] 「도깨비」/「한복의 선」

200자 안내

논문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엮음



독립기념관 부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소장 愼鏞廈)에서 펴낸 두번째 논문집.

「李相卨의 遺文과 李儁·張仁煥·田明雲의 義烈」(尹炳奭) 「국권회복운동기 일본유학생의 민족운동」(韓詩俊) 「한말 사립학교령 이후 일제의 私學 탄압과 그 특징」(柳漢喆) 「新韓革命黨의 결성과 활동」(姜英心) 「창녕군 영산의 3·1운동」(이정은) 「3·1운동기 국내 비밀결사운동에 대한 시론(朴杰淳) 「大韓(北路) 軍政署 독립군의 연구」(신용하) 「대한민국청년외교단 연구」(張錫興) 등 모두 16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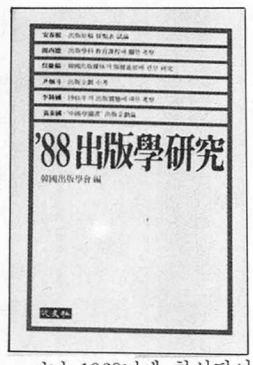
또한 광복군 제3지대장을 역임한 白波 金學奎장군의 자서전과, 역시 같은 제3지대 장교출신이었던 金文澤씨의 「회고 광복군 시기」, 1920년대 만주동포들 사이에서 애창됐던 「새배달노래」 등의 자료들을 부록으로 수록해 이 방면에 관심있는 이들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B5/716면/6500 원

학회지

'88出版学研究

韓國出版學會 엮음



지난 1969년에 창설되어 출판학의 개념과 방향정립에 정진해온 한국출판학회가 연구논집을 펴냈다.

기획, 편집, 제작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30항목에 걸쳐 원고의 출판가능성을 분석한 「출판원고 채점표 시론」(안춘근), 대학 출판학과 설립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핀 「출판학과 교육과정에 관한 고찰」(민병덕)을 비롯해, 「한국출판매체의 개발진전에 관한 연구」(오경호) 「출판기획小考」(윤형두) 「1945년의 출판실태에 대한 고찰」(이종국) 「중국학도서 출판기획론」(황병국) 등 6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한편 「한국대중문화론」 「일본출판물유통」 「저작권의 법제와 실무」 「신저작권법 축조해설」 등 88년에 출간된 출판 및 저작권법분야의 도서들에 대한 서평을 수록했고, 한국출판학회 이름으로 두차례 제기한 「학부과정에서의 출판학과 설치를 위한 건의서」 「출판계에서의 연구소 및 자료실 설치를 위한 건의서」 등도 함께 실었다.

汎友社/A5신/220면/5000원

이색출판

四物놀이

사진 / 시미즈 이치로

우리의 전통타악기인 장고, 꽹과리, 징, 북의 강렬한 리듬으로 국내는 물론 국외의 음악팬들을 사로잡아온 사물놀이패의 창단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펴낸 사진집. 일본의 음악전문 사진작가인 시미즈 이치로씨가 사진을 찍었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글을 함께 수록했다.

장고의 김덕수, 꽹과리의 이광수, 징의 강민석, 북의 최종실 네사람으로 편성되어 독특한 음악세계를 창조해온 사물놀이는, 한 독일 연주자의 評처럼 '한국의 정신과 리듬'을 대표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거리와 대학캠퍼스에서,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거느린 대연주회장, 국제민속타악기 연주자들의 '메가드럼즈'공연에 참가해 유럽8개국의 크고 작은 공연장에서 가졌던 각종 공연모습들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이책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리듬만큼이나 다이내믹하게 표현해낸 사진작품들과 시원한 편집으로 사물놀이의 매력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우리의 전통농악놀이, 무속 등에 관한 사진들도 이채롭다.

아트 스페이스/A4변형/148면/15000원